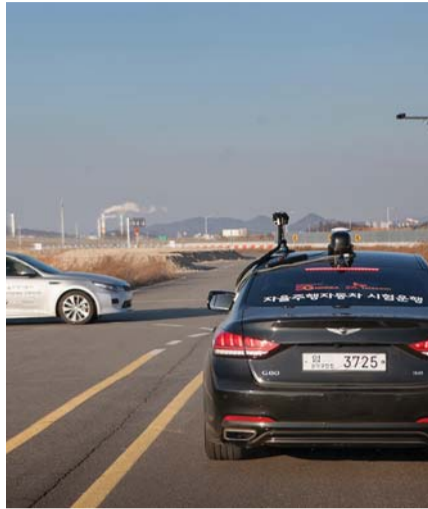


# SKT '자율주행차', 무단횡단 어린이·교통사고도 피한다

(5G)

표지판 cm단위 표현 HD맵 구현  
교통인프라·관제센터 5G 연동  
양자 보안모듈로 해킹 원천차단

# 5일 36만㎡(11만평) 규모의 K-시티. 방송인 김진표 씨와 SK텔레콤과 서울대 연구원이 각각 나란히 두 자율주행차에 탑승했다.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자 나란히 운행을 시작한 두 차량은 스쿨존에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차도에 등장하자 자동으로 속력을 줄였다. 어린이 모형이 사라지자 운행을 재개했다. 고속주행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속력을 높이면 두 차량은 출구 구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자율주행차끼리 사고 정보 수신을 받고 주행 차선을 바꿔 사고 지점을 통과했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해 있던 김진표 씨는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있어 운전자가 당황하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직접 해야 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5G 자율주행차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해 안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차로에서 만난 자율주행차 두 대가 5G 신호로 대화하며 통행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화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시티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5G 통신망으로 관제센터에 생중계했다.

이날 시연에는 SK텔레콤과 공단이 개발하고 있는 5G자율주행차 2대가 등장했다.

이 차량들은 ▲5G 차량통신 기술(V2X·차량대 사물간 통신) ▲3D HD맵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 기술을 활용해서 통신하고, 신호등·관제센터와 교통상황을 주고받으며, K-City의 스쿨존·교차로·고속도로 상황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트랙 약 2km 구간을 안전하게 달렸다.

복수의 5G자율주행차가 서로의 경로·안전을 살피며 협력 운행에 성공한 것은



방송인 김진표 씨가 차량 내부에서 양손을 놓고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번이 처음이다.

시연을 선보인 K-시티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공단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 구간에 28기가헤르츠(㎒) 초고주파대역 5G망을 구축하고 CCTV·신호등 등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관제센터를 5G로 연동했다.

같은 날 공개된 HD맵은 K-시티 주행도로의 정확한 차선 정보와 주변 교통표지판·신호등 등의 정보를 cm 단위로 정밀하게 표현했다. 자율주행차가 이동하는 동안 ▲주변 차량의 실시간 위치 ▲신호등 신호 및 교통 정보 ▲긴급공사·다중 추돌 사고 등 각종 주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HD맵에 반영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카메라와 센서 성능이 저하되는 악천후 야간 등 특수 환경에

서도 5G V2X와 3D HD맵이 자율주행차의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HD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M)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호 SK텔레콤 ICT 기술원장은 "HD맵은 자율주행뿐 아니라 맵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얼 월드(실제 세계)와 사이버 월드를 연결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양자 기술 기반 보안 모듈을 자율주행 차량에 조만간 탑재할 계획이다. 양자 보안 모듈은 차량·관제센터·IoT간 통신을 해킹하려는 외부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회사는 이와 함께 5G자율주행 세단 외 5G자율주행 전기버스, 5G HD맵 제작차량 등 다양한 자율주행용 차량을 선보였다.

'5G자율주행 전기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는 친환경 11인승 버스이다. 1회 배터리 충전으로 최장 150km, 최고 시속 60km로 주행할 수 있다. 이 버스는 5G 단말기, '셔틀버스 특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5G HD맵 제작차량은 지붕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초정밀 지도를 그린다. 이 차량은 지나간 길의 지형 지물 데이터를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며 HD맵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SK텔레콤, 공단은 K-시티의 5G통신망, 관제센터, 기술 등을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날 유엔젤, 세스트(CEST), 성우 모바일 등 중소기업들은 SK텔레콤, 공단과 함께 협업한 자율주행 결과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City는 다양한 실제 시험환경에 5G 통신시설까지 구축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라며 "자율주행차가 최첨단 5G 통신기술과 결합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V2X·3D HD맵 등 5G의 강점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벽한 5G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없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번 충전에 200km 달리는 '순수전기차'

BMW '뉴 i3 94Ah' 사전계약  
오는 3월 6가지 색상 정식 출시

BMW 그룹 코리아가 미래 이동성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순수전기차 '뉴 i3 94Ah'의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전세계 프리미엄 전기자동차 시장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매김한 BMW i3의 첫 부분변경 모델인 뉴 i3 94Ah는 전면 전폭을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를 갖췄고 풀 LED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모든 조명 기능에 LED 라이트를 적용했다. 방향 지시등 디자인은 원형에서 가로 일자형 형태로 바뀌어 더욱 날렵한 인상을 준다.

보닛에서 출발해 지붕을 지나 후면까지 이어지는 i3의 대표적 특징인 '블랙 벨트'는 A필러와 동일한 블랙 컬러와 크롬 루프라인(지붕 윤곽선)으로 마감했다. 후면은 U자형 LED 리어램프를 넣고 중앙에 크롬 선을 추가해 고급



BMW 뉴 i3 94Ah 전면.

스러움을 강조했다.

뉴 i3 94Ah는 33kWh, 94A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완전 충전시 한번에 최대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eDrive 모터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내며 전기차 유일의 후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색상은 '임페리얼 블루'와 '멜버른 레드' 등 두 종류가 추가돼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오는 3월 정식 출시를 앞둔 뉴 i3 94Ah의 트림별 가격은 LUX 모델이 6000만원, SOL+ 모델은 6560만원이다.

모든 모델에는 8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까지 배터리 품질이 보증된다. 올해 뉴 i3 94Ah의 국고 보조금은 1091만원, 주요 지자체별 보조금은 최대 11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KT, 美 스포츠이벤트서 5G 서비스 시연

KT는 버라이즌,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서 5G 연결에 성공하고, 실시간 5G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한국의 5G망(무선)과 미국의 5G망(무선)을 국제망(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와 시범 단말을 사용했다. 로웰 맥아담 대표를 비롯한 버라이즌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KT의 '윌니부' 앱을 체험했으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관계자들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버라이즌의 5G 가상 경기장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KT 황창규 회장과 버라이즌 로웰 맥아담 대표 사이의 5G 국제 영상통화가 이뤄졌다. 5G 영상통화에서 황창규 회장은 양사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이 한층 발전한 것을 축하하고, 5G 글로벌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국-미국 사이에 이뤄진 5G 시연 성공은 KT, 버라이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다. 3사는 세계



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버라이즌의 로웰 맥아담 대표와 5G 국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KT

최초 5G 규격 제정(평창 5G), 5G 단말 및 시스템 기술개발, 5G 시범망 구축 및 노후 공유 등 5G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사의 노력은 3GPP NSA(LTE-5G 호환) 국제표준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기여했으며, 향후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3사는 5G 상용화를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과 함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기술개발, 5G 에지 컴퓨팅 서비스 개발 등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5G 국제 표준화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나민 기자

## 썰리침대 세인트존스 호텔 전 객실 침대 공급

썰리침대가 세인트존스 호텔의 전 객실에 침대를 공급한다.

강릉시 강문해변에 오픈한 세인트존스 호텔은 객실 1091실을 보유한 매머드급 호텔이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가오픈한 상태다.

객실의 모든 침대는 호텔 사양에 맞춰 제작되며 안정감을 높인 투 매트리스 방식으로 구성된다. 썰리침대는 이번 제품은 2016년 설립된 여주 공장에서 생산되

며 호주 R&D 센터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5일 밝혔다.

썰리침대는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국내 호텔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부터 르 메르디앙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셰라톤 그랜드 인천 등 국내 최고급 호텔을 중심으로 침대를 공급하고 있다.

썰리침대 관계자는 "썰리침대만의 독

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을 찾는 모든 분에게 최상의 수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썰리침대와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내 호텔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썰리침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와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호텔부터 상그릴라 빌링길리 리조트&스파 몰디브, 발리의 불가리 리조트, 후주의 팔라조 베르사체 골드코스트 등 최고급 호텔에 침대를 공급하고 있다. /임한제 기자 ihj@

### 선데이토즈

지난해 영업이익 125억  
전년 동기 비 28.1% ↓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매출 727억원, 영업이익 125억원, 당기순이익 14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6%, 28.1%, 9.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는 매출 173억원, 영업이익 5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27.3%, 87.8%, 41% 감소한 수치다. 회사 측은 "10월 페이스북 전용 신작, 12월 '스누피 틀린그림찾기', 올해 초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출시에 따라 4분기에 일시적 비용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토즈의 매출을 견인한 주력 게임으로는 애니팡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애니팡3'과 '애니팡2'가 꼽혔다. 이외에도 '스누피 틀린그림찾기'를 비롯해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 등 신규 IP게임의 이용자 확대도 매출에 기여했다. /김나민 기자